1,2,3 RUTC 응답 24 : 70인 제자의 선교(마9:35-38) 3/27/2022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고, 자체 선교 대회를 하는 주일이다. 왜 선교가 필요한가? 왜 이 선교를 꼭 해야 하는가? 35절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든 병들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다고 했다.

26절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교의 당연성이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른다. 방황 할 수 밖에 없다. 가는 곳마다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지치고, 불안에 떨고,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습이 “기진했다”(Harassed)는 의미이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선교의 필연성이다.

37-38에 이제 주님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도와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군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응답해야 할 절대 이유다.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그 일에 쓰임받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선교의 절대성이다.

이 선교는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고, 나와 내 후대들과 우리 교회가 누릴 절대적 축복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성공하고 나니 미국과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전쟁을 막고 온 세상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는 길이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일인가?

요셉 한 사람이 미션을 깨달을 때 전 가족과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린 것이다. 요셉 이후에 그 후대들이 이 미션을 놓칠 때는 노예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놓치고 거기서 나오는 미션을 놓친 것이다(요나의 큰 실패).

반대로 우리가 “나와 내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언약과 미션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 밖에 없는 것이다(마28:18-20, 막16:15-20, 행1:8).

개인만이 아니다. 그 교회, 그 나라를 정말 세계 살릴 교회와 나라로 축복하시는 것이다(18-19세기의 영국, 19-20세기의 미국, 21세기에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잡고, 절대 방법을 붙잡아야 한다.

1. 우리 개인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70인 제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본문에 추수할 일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 70인 평신도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눅10장).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1) 누가 70인 제자인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축복을 붙잡은 자들이다.

 결국 개인의 문제, 세상의 문제, 시대의 문제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심과 타락이다. 그 배후에 분명히 타락의 영, 사단이 있다. 첫 인생 아담을 무너뜨린 그 사단이 모든 인생을 계속 속이고 있다(요8:44).

 욕심과 타락과 분쟁으로 이끌고 있다(약3:15-16). 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엡6:12). 그들이 온 땅을 깊은 흑암으로 덮고(사60:1), 고통과 저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계13:15-18).

2) 그리스도가 왜 오신 것인가? 무엇을 하신 것인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다(요19:30)

 참 제사장으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사53:5-6). 우리를 해방시키시고(롬8:1-2), 하늘의 복을 누 릴 자녀로 삼으신 것이다(엡1:3-5). 참 왕으로 오셔서 거짓 왕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창3:15),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요일3:8).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길이 되어주신 것이다(요14:6). 이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다.

3)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가서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약하고 문제와 고통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깊은 기회가 되는 시간이다. 증거를 얻을 시간이다.

 다섯 번 결혼을 실패한 여인이 그런 제자가 되었다(요4:1-30). 귀신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제자가 되었 다(요20:18). 국제 결혼했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쫒겨난 브리스가 부부가 그런 제자가 되었다(롬16:3-4).

 이들이 주님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최고의 지원자가 된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받은 증인이 된 것이다.

2.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인 선교를 하는 사람이 70인 제자이다(평신도 제자, 평신도 선교).

 내게 학교, 직장,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절대 이유다. 특히 미국에 와서 사는 절대 이유이다.

1) 내가 내 현장의 선교사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파송)

 거기서 흑암이 꺽이도록 기도하라(빛의 파수꾼이고 등대의 역할). 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답을 주고 간증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성공자가 되도록 기도하라(써밋의 축복). 누구든지 치유하고 살리도록 기도해보라(영적 의사)

 어느 날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2) 나 한 사람이 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영적 대사로 기도해보라.

 요셉의 기도가 그것이다(창45:5). 모세의 기도가 그것이다(행7:23). 에스더의 기도가 그것이다(에4:16).

 절대 이유를 붙잡은 제자에게 절대 응답과 절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전무후무한 축복)

3.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70인 제자이다.

1) 그래야 내 인생에도 미래가 있고, 늙어도 받을 응답과 축복도 따로 있다(신34:7, 대상29:28)

 영원한 미래에 받을 상급도 따로 있다(갈6:7-8). 낙심하지 말고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다(갈6:9).

2) 우리 후대 속에서 시대에 복음의 빛과 영광을 드러낼 제자가 나올 것이다. 각 나라로 갈 선교사도 나올 것이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결론적인 이유다(렘넌트의 다섯가지 축복 중에 “전도 제자”)

 바울이 각 지역의 회당을 찾아간 이유도 그것이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율법, 전통, 문화 만을 가르쳤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서 세계를 살릴 제자를 찾은 것이다(디모데, 디도)

결론-우리는 그냥 선교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린다(세계복음화). 이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복음에 결론난 성도가 세상을 살린다(전도 제자). 평신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사역이 중요하다(70인 제자)